

[제2021-040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도자료		사람이 있는 문화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1.8.26(목)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교육세미나 & 스포츠
연락처	323-936-3019 danylvjs@kccla.org	담당자	Daniel Kim

캘리포니아 주 '태권도의 날' 제정 기념식 및 태권도 시범공연 개최



- ▶ 행사명 : CA 태권도의 날 제정 기념식 및 태권도 시범공연 개최
- ▶ 일시 및 장소 : 기념식 : 2021. 9.4(토) 11:00, 부에나파크 소스물
시범공연: UC Berkeley(8.29), West Adams 고교(9.1),
Palos Verdes Peninsula 고교(9.3)
- ▶ 문 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9 교육세미나 & 스포츠 담당 Daniel Kim,
재미대한태권도협회 310.483.8562 이재현(회장)

LA 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과 재미대한태권도협회(회장 이재헌),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샤론 퀴크-실바 및 최석호 의원,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데이브 민 그리고 ‘태권도의 날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태권도인들과 여러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 21.9.4(오전11시) 브에나파크의 소스몰에서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 제정’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태권도의 날’ 제정을 위해 Resolution 발의 및 통과를 주도한 상·하원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감사패 전달과 국기원 명예단증 수여에 이어 상·하원의원들의 ‘태권도의 날’ 선포와 Resolution (태권도의 날 법률)전달, 국기원 시범단의 간이 태권도 시범공연, 오렌지 카운티 지역 Hallelujah 태권도 시범단 공연등으로 기념 축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경재 LA총영사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태권도 사범들은 한류의 원조로서 태권도장 전면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걸어 두고 현지인들을 직접 지도하며 한국 국가 홍보는 물론 한국어와 한국 문화까지 전파해온 공공외교의 첨병으로 진정한 애국자라며 경의와 함께 ‘태권도의 날’을 축하하였다. 또한 ‘태권도의 날’ 제정을 위해 실무를 총괄했던 샤론 퀴크-실바의원실의 박동우 보좌관은 “태권도의 날 제정을 위해 샌디에고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기까지 가주 전역의 태권도 수련생 및 가족, 그리고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지지 서명운동에 참여토록 태권도 사범들이 앞장서서 적극 캠페인에 나선것이 ‘태권도의 날’ 제정에 큰 힘이 되었으며, 태권도인들의 단결력에 감명받았다’ 고 마음을 전했다.

재미대한태권도협회 이재헌 회장은 “캘리포니아에서 ‘태권도의 날’이 제정된 것은 미국의 주류사회에서 태권도가 체력단련은 물론 예의와 극기정신 등 올바른 인성의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가주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하며 ‘태권도의 날’ 제정을 발의하고 힘써준 샤론 퀴크-실바 의원, 최석호 의원, 데이브민 의원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태권도의 날’ 제정 기념 및 축하행사의 일환으로 태권도 시범공연을 위해 8월27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세계적 수준의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단장 김상건)은 오는 29일(일, 11:00AM) UC Berkeley의 야외 광장 Hass Pavilion에서 3천여명의 UC Berkeley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태권도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행사는 LA한국문화원과 UCMAP(UC Berkeley Martial Arts Program)이 함께 준비하였다.

LA에서는 9월 1일(수, 08:30AM)에는 West Adams High School 풋볼 경기장에서 약 1천 5백여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9월3일(금, 12:00AM)에는 Palos Verdes Peninsula High School 풋볼 경기장에서도 2천 6백여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 대상으로 태권도 소개와 시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 ‘태권도의 날’ 제정을 주도했던 샤론 쿼크-실바의원과 최석호 의원 및 데이브 민 의원은 한 목소리로 “태권도의 날 제정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선 도장과 태권도인 모두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태권도가 이곳 미국에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끝/